

금융혜택에 온천까지... 은행 “130兆 시니어 모셔라”

(예금자산)

장년층 대상 금융상품 잇따라 출시
우리은행 예금·적금 시니어패키지
신한은행 전문 컨설턴트 은퇴설계
KB국민 여행·건강 비금융서비스
KEB하나 태블릿 맞춤형 은퇴설계

주요 시중은행이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준비에 한창이다. 국내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노령화지수(유소년 100명당 노령인구)는 119.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니어 고객의 은행 예금 자산 또한 약 130조원으로 전체의 약 21%에 이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사회 속에서 시니어 고객의 금융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은 은퇴한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은퇴금융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은행은 최근 은퇴 전후 고객에게 특화된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만 50세 이상이 가입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에서 한 방문객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시니어플러스 우리 패키지는 입출금통장·정기예금·적금으로 구성되며, 금융 혜택뿐만 아니라 스파·온천 무료이용권 ▲무료 보이스피싱보험 ▲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지난 2014년 처음 오픈한 신한은행의 은퇴브랜드 ‘신한 미래설계’는 금융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645명의 미래설계 컨설턴트를 전국 영업점에 전면 배

치함으로써 고객의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분석하며, 맞춤형 은퇴설계시스템인 ‘S-미래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의 대표 은퇴상품인 ‘미래설계 통장’은 우대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출시 이후 가입 고객 수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의 시니어 모바일 플랫폼 ‘골드라이프 뱅킹’은 금융서비스와 여행·쇼핑·건강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니어 전용 모바일 플랫폼으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의 KB스타뱅킹 앱으로 접속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니어 고객의 이용도가 높은 조회·이체 메뉴를 전면 배치하고, 화면 글씨체를 확대하는 등 시니어 맞춤형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 시니어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이 가능한 ‘태블릿 은퇴설계서비스’를 자체 개발했다. 태블릿 은퇴설계서비스는 KEB하나은행의 강점인 프라이빗 뱅커(PB)들만의 자산관리 노하우와 첨단 IT기술력을 결합해 은행권 최초로 개발됐다. KEB하나은행의 시니어 고객들은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편리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시니어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교육 및 세미나도 다양하게 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시니어를 위한 공익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

단과 함께 시니어 교육 및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힐링캠프 등 시니어 특화 교육사업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오프라인 은퇴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고객 친화적인 맞춤형 은퇴솔루션을 만들었다.

KB국민은행의 KB골드라이프 인생설계 아카데미는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퇴직후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사회공헌 등 맞춤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인생 재설계를 지원한다. 아카데미는 KB스타자문단 객석혁 전문가의 ‘100세시대 은퇴자산관리’ 등 은퇴 후 자산관리에 대한 콘텐츠를 확대하며 50대 중년층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시니어 고객들은 은행권의 새로운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은퇴시점을 앞둔 고령 고객을 위해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있는 인생 2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KEB하나銀, 금융권 최초 연금전용 플랫폼

‘하나연금통합포털’ 오픈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 손님 및 가입예정 손님을 위한 연금자산관리 전용 플랫폼 ‘하나연금통합포털’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연금통합포털은 손님의 성공적인 연금자산 포트폴리오 설계를 돕기 위해 IRP 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개별 퇴직·개인연금 펀드상품 정보 및 다양한 투자 콘텐츠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제공하며 연금자산 신규가입 및 상품변경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하나연금통합포털은 배너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에서 제공하는 ▲연금펀드 관련 상품 정보 ▲리서치 및 자산시장 전망 ▲펀드 뉴스 ▲경제 트렌드 등의 전문자료와 국제형 휴택스, 국민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금융감독원 파인 등 은퇴설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에 손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



도록 구성됐다.

24시간 365일 별도 가입 및 인출절차 필요 없이 ‘하나원큐’ 스마트폰 뱅킹 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KEB하나은행에 연금계좌가 없는 손님도 사용 가능하다.

KEB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성공적인 연금자산관리를 위해 시스템·서비스의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전문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제안과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민영 기자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상호금융이 부담한다

내달부터 수수료 대폭 경감
 차주, 인지세 50%만 부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부동산 담보신탁 부대비용을 조합이 부담토록 하고, 관련비용 안내 강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은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담보신탁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은 모두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라는 점에서 실질이 동일하지만 담보신탁 대출을 취급하면서 관

(1억 대출시 부동산 담보신탁 비용부담주체 변경효과(예시))

단위: 만원

부담 주체	현행	개선(안)	비고
조합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50%)	-감정평가수수료, 인지세(50%)	조합부담 (42.5만원 ↓)
	-신설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신설	-법무사수수료	
차주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폐지	차주부담 (42.5만원 ↓)
	-법무사 수수료	-폐지	
	-인지세(50%)	인지세(50%)	

/자료=금융감독원

련 수수료를 차주에게 대부분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이용하면서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등 여타 비용은 모두 조합이 부담한다.

만약 다음달 A씨가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비용부담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담보신탁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하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나 비용 부담주체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금감원은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정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카드매출액 일부 매일 적금으로 쌓는다

신한은행 ‘신한 가맹점 스윙 적금’

신한은행은 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저축할 수 있는 신상품 ‘신한 가맹점 스윙(Swing) 적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 가맹점 스윙 적금’은 매일 입금되는 카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이체해서 적립하는 적금이다. 신한은행은 소호(SOHO) 사관학교,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개인사업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에 비해

해서 적립하는 적금에 대한 개인사업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상품을 개발했다.

이 상품의 납입한도는 일 5만원, 월 100만원이다. 적금 신규시 고객이 매출액 입금액 중 적립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가입 대상 고객은 신한은행 계좌를 카드 매출액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며, 적립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20%다.

1년 만기로 출시된 ‘신한 가맹점 스윙 적금’의 기본 금리는 연 1.5%, 최고 금리는 연 3.1%이다.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 부산·경남서 수출입 실무 아카데미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부산·경남 지역 소재 수출입 거래기업의 실무직원 50여명을 초청해 ‘KB 수출입 실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KB 수출입 실무 아카데미’는 수출입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전달하는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73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수출입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아카데미는 ▲수출입업무 ▲기업 환리스크 관리 ▲통관 및 관세환급 ▲수출입 금융상품 등을 주제로 강의가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KB 수출입 실무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됐으며, 강의에 나선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직자들이 실무 노하우를 전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오렌지라이프 치료비에 생활비 보장 2030 위한 ‘암보험’

오렌지라이프는 경제기반이 약한 2030세대를 위해 암 치료비는 물론 암 진단 후 생활비까지 보장하는 ‘오렌지 청춘암보험(무배당, 갱신행)’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암 치료비와 암 진단 후 생활비를 함께 보장한다. 주계약만으로도 일반암진단금 5000만원을 보장하며, ‘암생활자금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엔 매월 100만원씩 최대 10년간 최고 1억2000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홍민영 기자